

보도시점 2026. 1. 12.(월) 11:00
1. 13.(화) 조간

배포 2026. 1. 12.(월) 09:00

수출 신기록 쓴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2025년 136억 달러 돌파!

- 전년 대비 5.1% 증가, 농식품 104.1억, 농산업 32.2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
- 라면·소스류·포도·딸기, 동물용의약품·농기계·농약·비료 등이 주요 성장 품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액(잠정)이 지난해보다 5.1% 증가한 136.2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농식품 104.1억 달러, 농산업 32.2억 달러이며, 두 분야 모두 집계 이래 최대 실적이다.

*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농식품(신선, 가공) + 농산업(동물용의약품, 농기계, 농약, 비료 등)

【 농식품 분야 】

농식품은 2015년 이후 10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한 것은 물론, 전년 대비 4.3% 증가로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라면이 단일 품목으로는 처음으로 15억 달러를 넘어섰고, 그 외에도 11개 품목이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 농식품 역대 최고 수출 품목(총 12개): 라면, 조제품 기타, 소스류, 커피조제품, 김치, 아이스크림, 리큐르, 포도, 딸기, 베이커리 반죽, 코코아분말, 돼지고기

《품목별》라면, 소스류, 아이스크림 등의 가공식품과 포도, 딸기 등의 신선식품이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 품목별 수출액(증가율): 라면 1,521.4백만 달러(21.9%↑), 조제품 기타 744.8(9.5↑), 소스류 411.9(4.6↑), 김치 164.4(0.5↑), 아이스크림 111.3(21.6↑), 포도 84.7(46.3↑), 딸기 72.0(4.0↑)

라면은 전년 대비 21.9%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15.2억 달러 수출 실적을 기록하였다. 글로벌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생산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치즈맛 매운 라면 등의 신제품이 호응을 얻었고, 중국, 미국 등 기존 주력 시장은 물론 중앙아시아(CIS), 중동(GCC) 등에서도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 라면 수출액(증가율): (中) 385.4백만 달러(47.9%↑), (美) 254.7(18.2↑), (아세안) 223.2(12.4↑), (CIS) 82.4(38.7↑), (日) 77.3(23.6↑), (GCC) 47.5(22.0↑)

소스류는 K-매운맛의 전 세계 인기로 인해 수출이 확대되었다. 중국에서는 온라인 판매 중심이던 매운맛 소스가 주요 오프라인 유통매장으로 판매채널을 확대하며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다. 미국에서는 맵고 달콤한 맛의 유행으로 고추장, 기타 소스(떡볶이·바비큐 소스) 등의 소비가 증가하였다.

* 소스류 수출액(증가율): (美) 92.2백만 달러(5.0%↑), (中) 60.4(13.2↑), (CIS) 40.2(2.6↑), (日) 38.3(6.3↑)

아이스크림은 미국·캐나다·일본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확대되어 사상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비건·저지방·무설탕(zero sugar) 등 웰빙 식품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 출시가 수출 확대에 기여하였다.

* 아이스크림 수출액(증가율): (美) 35.6백만 달러(20.5%↑), (CIS) 9.2(32.0↑), 캐나다 9.1(24.5↑), (日) 7.4(309.5↑), (中) 6.9(10.3↑), (GCC) 3.8(32.9↑), (유럽) 2.8(57.0↑)

포도는 국내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상승과 대만 수출 포도의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정착됨에 따라 대만, 북미 지역 등에서 수출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 포도 수출액(증가율): 대만 44.0백만 달러(133.5%↑), (美) 11.4(33.2↑), 캐나다 5.0(13.2↑), 싱가포르 4.1(22.3↑), 태국 2.5(18.8↑)

딸기는 수출 주력 품종인 ‘금실’과 함께 ‘홍희’, ‘비타베리’ 등 국산 신품종 수출이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태국·싱가포르·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당도가 높고 과즙이 많은 프리미엄 과일로 인지도가 확산되며 수출 실적이 증가하였다.

* 딸기 수출액(증가율): 태국 19.7백만 달러(20.4%↑), 싱가포르 19.5(7.2↑), 베트남 7.5(6.9↑)

《지역별》 북미·중화권·유럽·중동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하였다. 작년에 이어 수출액 1, 2위를 차지한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 성장을 이끌었으며, 유럽, 중동(GCC) 등 유망시장의 약진이 돋보였다.

* 지역별 수출액(증가율): 북미 2,015.0백만 달러(12.4% ↑), 중화권 2,379.0(3.9 ↑), 유럽 773.7(13.6 ↑), GCC 411.6(22.6 ↑)

미국은 전년 대비 13.2% 증가한 역대 최대 실적 18.0억 달러를 달성하며 전년에도 이어 제1위 수출시장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다. 현지 대형 유통매장 입점을 확대하고 현지 맞춤형 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이면서 라면, 소스류, 아이스크림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 미국 수출액(증가율): (‘24) 1,592.5백만 달러 → (‘25) 1,803.5(13.2% ↑)

** 주요 품목 수출액(증가율): 라면 254.7백만 달러(18.2% ↑), 소스류 92.2(5.0 ↑), 아이스크림 35.6(20.5 ↑)

중국 내 케이(K)-콘텐츠 인기 등으로 매운맛 라면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라면 수출이 크게 늘었고, 기타 소스(치킨·떡볶이 소스) 등 소스류 수출도 동반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5.1% 증가한 15.9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 중국 수출액(증가율): (‘24) 1,511.5백만 달러 → (‘25) 1,588.3(5.1% ↑)

** 주요 품목 수출액(증가율): 라면 385.4백만 달러(47.9% ↑), 음료 164.4(4.1 ↑), 소스류 60.4(13.2 ↑)

유럽 지역은 웰빙 트렌드와 길거리 음식(K-스트리트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과 떡볶이 등의 쌀가공식품, 김치 수출이 증가하였다. 또한, 닭고기는 검역 협상 타결 이후, 닭강정, 닭고기 만두·소시지 등 다양한 형태의 가공제품으로 본격적인 수출이 이루어져 전년 대비 높은 성장률(417.6%)을 보였다.

* 유럽 수출액(증가율): (‘24) 680.8백만 달러 → (‘25) 773.7(13.6% ↑)

** 주요 품목 수출액(증가율): 조제품 기타 49.0백만 달러(49.0% ↑), 쌀가공식품 26.9(14.5 ↑), 김치 23.4(4.6 ↑), 닭고기 2.5(417.6 ↑)

중동(GCC)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22.6% 증가한 4.1억 달러로 유망 시장으로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케이(K)-푸드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통해 소비층이 확장되면서 매운맛 라면과 소스류, 아이스크림 등이 현지 기후에서도 매력적인 맛으로 자리매김하며 큰 폭의 성장률을 보였다.

* 중동(GCC) 수출액(증가율): (‘24) 335.8백만 달러 → (‘25) 411.6(22.6% ↑)

** 주요 품목 수출액(증가율): 라면 47.5백만 달러(22.0% ↑), 소스류 4.8(31.7 ↑), 아이스크림 3.8(32.9 ↑)

【농산업 분야】

농산업 수출액은 32.2억 달러로, 전년 대비 8.0% 증가하여 농산업 수출 실적을 공식 집계·발표한 2022년 이후 최대 실적 및 증가율을 달성하였다. 농기계, 농약, 비료, 종자, 동물용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서 고르게 수출이 늘어났다.

* 연도별 수출액: (‘22) 30.3억 달러 → (‘23) 29.7 → (‘24) 29.8 → (‘25) 32.2

** 주요 품목별 수출액(증가율): 농기계 1,350.2백만 달러(10.8% ↑), 농약 939.3(14.6 ↑), 비료 447.4(8.2 ↑), 종자 60.1(5.9 ↑), 동물용의약품 330.0(9.8 ↑)

농기계는 주력 시장인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품목관세 부과 등 불리한 교역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국시장 제품 라인업 다양화, 아시아·유럽 등 시장 개척 등을 통해 성장률 10.8%의 호실적을 보였다.

* 국가별 수출액(증가율): (美) 935.0백만 달러(12.5% ↑), (日) 53.0(148.8 ↑), (네덜란드) 48.7(32.0 ↑)

농약은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시장 중심으로 완제품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었고,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기업 위탁생산 확대 등 수출 기반이 강화되면서 수출 실적이 크게 향상되었다.

* 국가별 수출액(증가율): (中) 140.8백만 달러(39.0% ↑), (베트남) 139.8(24.6 ↑), (인나) 111.4(150.0 ↑)

비료는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권역에서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상승으로 소비가 증가하였고, 러시아·중국 등 주요 비료 수출국의 비료 수출 통제 정책으로 인해 국제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출 실적이 개선되었다.

* 국가별 수출액(증가율): (태국) 116.7백만 달러(9.0% ↑), (베트남) 92.1(11.2 ↑), (日) 46.3(9.0 ↑)

종자는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은 한국산 고추 종자와 옥수수 종자의 수출 확대가 전체 종자 수출을 견인하였다.

* 국가별 수출액(증가율): (베트남) 4.2백만 달러(150.1% ↑), (이집트) 2.3(5.8 ↑), (태국) 1.4(29.7 ↑)

동물용의약품은 해외시장 조사, 마케팅 강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유럽 내 중국산 라이신(동물용 영양제)을 대체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9.8% 신장하였다.

* 국가별 수출액(증가율): (네덜란드) 29.3백만 달러(107.9% ↑), (스페인) 23.9(39.3 ↑), (이탈리아) 13.9(114.1 ↑)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케이(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지난 해 역대 최고 실적을 발판으로 ‘5대 전략(A-B-C-D-E)’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케이(K)-푸드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 썬 매력 제품 발굴·육성(Attractive authenticity), 원스톱 애로 해소(Business-friendly), 케이(K)-이니셔티브 융합(Convergence with K-Initiative), 디지털·기술 혁신(Digital Technology & Innovation),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Expand global market reach)

권역·시장별로 선정한 전략품목 육성을 위해 복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시장 개척/진출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하고, 관계 부처의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과 인증 비용 부담 완화 등의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관세/비관세 조치 등으로 녹록지 않은 무역 환경이었지만, 케이(K)-푸드에 대한 호감도와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2026년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 목표를 160억 달러로 설정하였으며, 민·관이 참여하는 ‘K-푸드 수출기획단’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제품이 전 세계 시장으로 더욱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노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5년 K-푸드+ 수출 실적 인포그래픽

※ 본 보도자료상 실적은 2025.1.1.~2025.12.31.까지의 잠정치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연간 통계 확정 시 일부 정정될 수 있음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실 농식품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강효주 (044-201-2171)
		담당자	사무관	강태원 (044-201-2172)
	농식품혁신정책관실 농산업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서정호 (044-201-2471)
		담당자	사무관	한상훈 (044-201-2472)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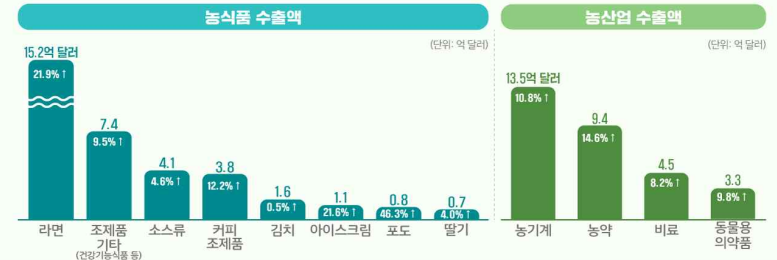
2025년 K-푸드+ 수출 실적 인포그래픽

2025년 K-푸드+ 수출 역대 최대 실적 136억 2천만 달러 달성!

연도별 수출 실적



주요 품목 수출 실적



권역별 농식품 수출 실적

